

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,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

✎ 김철희 기자 | ㉠ 승인 2026.01.21 15:33

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월 50만원 지급



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전경. 사진=데일리한국DB

[구미(경북)=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구미·김천지사(지사장 나창식)는 2026년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해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.

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기간 합산 10년 이상인 농업인이다.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 완료 농지가 대상이다.

이 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이양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.

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,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.

나창식 지사장은 "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농업인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돼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

김철희 기자 chk1500@naver.com